

광주·전남 민간건축물 10곳중 6곳 지진 무방비

소병훈 의원 ... 내진설계 광주 40%, 전남 33% 그쳐

최근 2년간 내진성능 보강 지방세 감면 한건도 없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내진 설계 의무대상 민간 건축물 10곳 중 6곳 이상이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간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 성능을 확보해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에 따르면 광주는 내진 설계 대상 민간건축물 3만5458동(棟) 중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40.2%인 1만4257동에 그쳤다.

전남은 이보다 더 낮아 대상 3만8365동 중 33.0%인 1만2675동만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1988년 건축법 시행령(6층 이상 연면적 10만㎡)에 처음 도입된 뒤 2005년(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과 2015년(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기준이 강화됐다.

전체 건축물을 포함하면 광주(13만8839동)와 전남(60만1734동)의 내진 설계 비율은 10.3%와 2.1%로 훨씬 떨어진다.

전국 평균 내진 비율이 6.7%인 점을 고려하면 농어촌지역으로 단독주택이 많은 전남은 턱없이 낮은 수치다. 특히 1~2층 단독주택이 지진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는 의미다.

소 의원은 "정부가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감면된 사례는 최근 2년간 경기, 강원 등 5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내진성능을 보강해 이를 토대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액수도 강원이 2014년과 2015년 58만5000원과 61만9000원, 지난해 경남 2만3000원, 전남 7만7000원, 경기 194만원, 충북 401만원에 불과했다.

광주와 전남은 최근 2년동안 단 한건도

없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신규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 확보를 강제할 수 있지만, 1988년 이전에 지어진 민간 소유 건축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지방세 감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소 의원은 "지진 발생시 내진 설계가 안된 건축물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많은 시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및 건축법 완화,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완도수목원 동백숲 전남대표 특화단지 조성

동백잎·꽃·종자 자원화 숲 전체 산림생태관광지

완도수목원 내 자생 동백숲이 전남을 대표하는 동백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동백잎, 꽃, 종자를 산업자원화하고, 숲 전체를 산림생태 관광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은 28일 "29일 완도수목원에서 전문가 현장 토론회를 갖고 수목원 내 완도군 군외면 산1-4번지 일대 50여만평의 자생 동백숲에 2020년까지 42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 있어 난대특산수종인 동백 특화림 조성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숲 가꾸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전라남도 숲가꾸기 기술자문단 이근태 기술사, 광주생명과학 김세진 사무처장, 천관산 동백숲보전회 이승희 회장, 전남대 김은일 교수 등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화식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수목원의 동백 치유의 숲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까지 동백림 생육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 숲가꾸기, 가지치기 등을 추진하겠다"며 "지역 주민, 환경단체, 기술 전문가 등과 주기적으로 협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생육 환경을 개선해 건강한 생태 숲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수목원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 일자리 창출

'희망 박람회' 열려

고양서 다음달 1일까지

정부와 지역발전위원회, 17개 특·광역시·도는 28일부터 10월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등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2016 지역희망박람회'를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전시장의 각 시도관에서는 지난 4년간 정부가 펼쳐온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63개와 새마을사업 151개 성과와 규제프리존으로 뒷받침되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소개한다.

광주관에서는 '수소자동차 육성전략'이, 전남관에서는 '에너지 자립섬의 비전'이 각각 전시된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28일 지방이전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를 가지며, 전남도도 28일 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창현 광주시장이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지역희망박람회에서 '광주시 전시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친환경 자동차 선도시를 주제로 한 전시관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신성장동력은 에너지·첨단車·드론"

광주전남연구원, 통합개원 1주년 심포지엄서 주장

"미래창조부 산하 '미래사회청' 신설해야"

광주전남연구원이 광주·전남의 신성장동력은 에너지신산업·첨단자동차산업·드론산업 등 신전략산업, 차세대 융복합 환경산업, 스마트 농수산업, 미래형 미디어산업이라고 정리했다. 이들 산업을 지역에서 선도하고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가칭)미래사회청'을 신설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8일 연구원 상생마루에서 '광주전남의 신성장동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통합 개원 1주년·건원 25

주년 기념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신성장동력 TF팀은 '4차 산업혁명시대, 광주전남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발제문을 통해 광주전남 4차 산업혁명의 추진 기본 방향으로 ▲인공지능(AI), CPS의 초연결을 바탕으로 지식·지능기반산업 메카 조성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와 광주R&D특구를 중심거점으로 4차 산업혁명 추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로드맵의 광주전남 중심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어 광주전남 신성장동력 육성방안으

로 에너지신산업·첨단자동차산업·드론산업 등 신전략산업 거점 조성 및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 구축 및 ICT 기반 재난관리 기반 고도화 등 차세대 융복합 환경산업, 스마트 농수산업, 미래형 미디어산업 등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또 온라인 검색엔진에서 무인차, 로봇, 드론, 생명과학, 우주산업 등으로 확장하고 있는 글로벌 구글 그룹을 모델로 한 초융합 초연결 경제사회 생태계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앞서 이만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디지스트 석좌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략'라는 주제로 기제발표를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살률 3년 연속 전국 최저

청소년·노인 자살률도

특별·광역시중 가장 낮아

지난해 광주지역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자살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다. 전국 평균은 26.5명이었다.

광주는 청소년(10만 명당 5.2명), 노인(50.1명) 자살률도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광주는 2013년 10만 명당 22.6명,

2014년 10만 명당 23.8명으로 세종시를 빼고 자살률이 가장 낮아 3년 연속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가 24시간 위기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현장출동을 통한 응급대응 체계 강화, 자살 고위험군 발굴·관리, 청소년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 등 활발한 자살예방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위기상담 전화 7444건, 현장출동 249건을 기록했다. 위기상담 건수도 2012년 하루 평균 0.3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설치 CCTV 35% 저화질

송기석 의원 국감 자료

전남지역 국보와 보물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상당수가 야간에 식별조차 어려운 저화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 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2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국보와 보물 목조문화재에 총 135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이 중 47대(34.8%)가 낮에도 물체 식별이 어려운 41만 화소인 것

으로 조사됐다. 130만 화소 이하는 2대, 130만 초과는 86대로 나타났다. 41만 화소는 야간에 무용지물이고 낮에 찍은 영상으로도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일명 효도폰이라고 불리는 2G폰 카메라보다도 못한 저화질 CCTV는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방법설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국보와 보물 목조문화재에 총 135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이 중 47대(34.8%)가 낮에도 물체 식별이 어려운 41만 화소인 것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16-00592호(번) (2016.09.2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6호(2016.09.20)

창립 34주년 특판 300억 한도

(한도소진시 조기 마감)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1년 복리정기예금 2.40%

(연이율, 월복리, 세전이율, 만기이자지급)

부동산담보대출!!

신축자금대출!!

할인어음!!

더블저축은행 ■ 본점 (062) 223-5506 ■

구도청1 ●충장파출소 ●광주세무서
●국민은행 ●NC WAVE
더블저축은행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